

나주시 기업친화도시 기반 다진다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

기업 거리명 부여 등 심의

'기업으로 바로 톡' 채널도 개설

나주시가 올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기업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 거리명 부여, 주간행사 운영 대상기업 선정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친화도시 조성은 거리명 부여, 기업-기관 주관행사, 상품 알리기 등을 통해 기업-기관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추가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위원회는 거리명 부여 등 기업 선정 기준으로 상시 종사자 기준 공기업은 300명 이상, 일반 기업체의 경우 9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업체)에는 회사명이 포함된 거리명 지정해 거리명 부여 표지판 제작·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업 주관행사 기간을 지정해 기업 소개, 상품 알리기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 주간 행사'는 특정 기간에 대외적으로 기



기업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업을 소개하고 생산 제품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기업 애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나주시는 기업과 전담공무원을 1대1로 묶는 '기업으로 바로 톡' (가칭)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불편 사항을 실시간 접수해 빠르게 해소한다는 방

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업 경영하기 좋은 기업친화도시 조성하고 함께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화된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대한민국 한식대가' 2명 배출

한식포럼 운영자·염화윤씨 선정

화순군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한식포럼 주관 '대한민국 한식대가' 선정 사업에서 운영자·염화윤씨 등 2명을 배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한식포럼은 지난 2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2024년도 대한민국 한식대가·명장 발굴, 선정 포럼 세미나'를 열어 운영자·염화윤씨, 염화윤 화순향토음식연구소 회장 등을 '대한민국 한식대가'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한식대가·명장 선정 사업은 한식문화 발전과 한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식 분야별 독자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한식대가와 명장을 발굴한다.

한식대가는 20년 이상 경력을 갖고 한식문화 발전에 노력한 사람 중 음식 분야별 전문성과 공헌도, 활동성 등을 평가해 엄선한다.

운영자씨는 전통·향토음식 분야 대한민국 한식대가로 선정됐다. 전통 한옥인 화순양잠사택의 주인이자 발효음식연구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화순 향토음식과 발효음식 자원을 발굴, 보존·계승시키기 위해 음식 관련 각종 경연



운영자씨

염화윤씨

대회와 전시회 등에서 향토음식 보급에 앞장서 왔다.

한식조리 부문 수상자 염화윤 씨는 화순향토음식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음식 관련 경연대회에서 약선·전통음식 분야 수상을 했다.

화순군은 지난 2019년 김영란(화순향토음식연구소·송정희(발효연구소)), 2020년 정효화(발효연구소), 2021년 박영심(화순향토음식연구소), 2022년 임영숙(화순향토음식연구소), 지난해 김순례(화순향토음식연구소) 대가, 지난해 김영란(화순향토음식연구소) 명장이 이어 대한민국 한식대가 2명을 양성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 만나러 오세요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11일~9월8일 '국보 순회전'

고려 시대 개성에서 출토된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가 강진에서 전시된다.

강진군은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오는 11일 개막해 9월8일까지 이어지는 기획전 '국보 순회전: 모두의 걸음'에서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 등을 전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도자기에 핀 꽃, 상감청자'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 등 12개 국립박물관, 12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이번 순회 전시를 마련했다.

국보로 지정된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와 '청자 국화무늬 잔과 받침', '청자 상감 불가품경



국보 '청자상감 모란무늬 항아리'.

무늬 매병', '청자 상감 국화무늬 잔' 등 4건 4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전시장에서는 최신 전시 연출 기법이 활용된다.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는 고려 궁성이 있는 개성 인근에서 출토됐다. 고려청자 가운데 모란을 가장 정교하고 화려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한 청자 항아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강진 청자요지에서 생산한 왕실 자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강진군에는 대한민국 청자 요지의 50%가 자리하고 있으며, 해마다 청자축제를 열고 있다. 고려청자 상감기법은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속에 금이나 은을 넣어 채운다. 고려 시대에 세계 최초로 고려청자에 사용돼 전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시 개막식은 11일 오후 3시 고려청자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강진 출신 국악인 김준수의 공연이 펼쳐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국보 순회전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함께 협력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지역에서도 국보를 직접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난 31일 사창초교를 찾아 점심 시간에 신선 과일을 나눠주고 있다.

장성군 신선과일 지원 초교·유치원까지 확대

어린이집 등 41곳에 제철과일

장성군이 지역에서 나온 과일을 제공하는 '신선과일 지원사업' 대상을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했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교육시설 신선과일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초등생, 어린이집·유치원 원아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모두 군비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전년보다 3000만원 늘어난 1억4000만원을 들인다.

장성군은 지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41곳에 다니는 2500명에게 매주 한 번씩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고 있다. 장성의 대표 과일인 사과와

딸기, 블루베리, 포도, 체리, 수박, 멜론 등 제철 과일을 한 컵에 담아 나눠주고 있다.

7-8월 방학을 빼고 오는 11월까지 5-6개월 신선과일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일은 지난해 준공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 복지시설, 군부대 등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통합 물류시설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난 31일 사창초교 급식 배식에 참여하며 어린이들에게 신선과일을 나눠줬다.

김 군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과일 급식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성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가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호남권역 산림 바이오 가공단지 유치

200억원 들여 2027년까지 조성

장흥군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호남권역 산림 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장흥군과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내 임산물

가공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제품 소재 개발을 위해 단지 조성을 건의해왔다. 이 사업은 총 20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추진된다.

부지는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 내로 접근성과 확장성을 두루 갖췄다고 장흥군은 전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와 기본·실시설계 용역, 건

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면적 2000㎡ 규모 단지에는 원료가공시설, 세척·건조실, 저장고, 가공 기술 연구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산림 바이오 가공지원단지가 호남권역 임산물 생산자와 바이오 기업 간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6월호

2024년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위기 넘자! 전통시장의 변신



쇼핑 더하기 관광, 체험콘텐츠 경쟁
MZ들의 놀이터, 이 시장 어디?
문화기획자의 전통시장 살리기 체험



보성 여행

치유정원 태백산맥 울포바다

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③
'송나미'라 불렸던 문인화가 사호 송수면

문화 화제 - 사진으로 만나는 2024 호남예술제
세계 무대 빛날 예술 꿈나무들의 무대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④
민화의 세계에 폭 빠지는 공간, 강진 한국민화뮤지엄



에향 초대석

등단 40년 맞은 아동·청소년문학 작가 이금이

"우리 시대 독자와 함께 끊임없이 성장하겠다"

문화시인으로 살아가기 ②

소중하게 키워온 '아날로그 사람' 광주극장을 지키는 사람들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 ⑥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SFMOMA, 낭만의 도시에 예술의 꽃 피다



전환 다함과 다도의 맛 찾아 남도로 차 여행

호남의 누정 ⑩-광주 만취정

푸르른 지조 지켜온 대학자 심원표 선생의 우뚝함 맑은 정자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⑥
광산구 비아와 침단
막걸리 목 축이고, 과학기술 키우고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대중의 물결과 스크린 독점 사이... 또 한 번 천만 관객